

해 외 출 장 복 명 서

출 장 자	소 속	본원	직 위	선임연구위원	성 명	김영옥
		본원		연구위원		마경희
		본원		연구원		이선행
출장기간	- 4/27- 4/28 - 4/29- 5/3		출장지	- 영국 런던 - 스위스 바젤, 취리히		
출장목적	① 스위스 바젤시 공무원, 전문가와의 round table 개최 ② 스위스 지방정부(바젤시, 취리히시)의 성인지 예산 사례 조사 ③ 스위스 성인지 예산 전문가(경제학자) 인터뷰 ④ 영연방국가들의 성인지 예산 제도화 사례 조사 ⑤ 국제심포지엄 개최를 위한 각국 전문가 발굴 ⑥ 3개년 사업의 연구 인프라 구축을 위한 네트워킹 ⑦ 한국의 성인지 예산 제도화 사례 홍보					
경비부담	본원 부담 (기본연구사업비, 약 12,404천원)					
주최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방문기관 및 면담자				협의사항		
영 국	- 영연방사무국(Commonwealth Secretariat) Social Transformation Programmes Division · Sarojini Thakur(Head of Gender Section) · Fatimah Kelleher (Program Officer)			- 영연방 사무국의 성인지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활동과 개별 국가 지원시 재정부와의 파트너십의 장점과 단점에 대한 파악 - 영연방 지원 중단 이후 개별 국가들의 성인지 예산 사업의 지속성 여부 파악 - 영연방 국가들 중 성공적 사례 파악		
스 위 스	- 바젤시 (Canton of Basle-City) Women's Council, Statistical Department · Mascha Madoerin(Expert on GB, feminist (macro) economist · Straumann Leila(The Women's Council) · Gabriella Matefi(The Women's Council) · Andrea Pheifer(Statistical Department) - 쾰리히시(City of Zurich) · Heim Dore(Head of Gender Equality Office)			- BASS 분석기법 및 Incidence analysis 분석기법에 대한 구체적 이해 - 예산분석을 위한 통계자료 구축 현황 및 방법 - 성인지 예산의 도입을 둘러싼 주요 이슈로서 정의와 도구, 담당기구와 다양한 주체들간의 파트너십 등의 파악		

상세한 업무처리 및 세부내용은 별도 붙임

2008. 5. 14.

출 장 복 명 자 : 김 영 옥

해외출장 결과 보고서

성 인지 예산 제도화 연구 사례조사
: 영국 영연방사무국 및 스위스
(Gender Budgeting in Commonwealth Secretariat
and Switzerland)

2008. 5. 14.

보고자 : 김 영 옥
GM연구본부 성인지예산센터 선임연구위원

1. 회의명 : 성인지 예산 제도화 사례조사 (영연방사무국 및 스위스)

Gender Budgeting in Commonwealth Secretariat and Switzerland

2. 회의배경 및 목적

- ① 스위스 바젤시 공무원, 전문가와의 round table 개최
 - 스위스에서 성인지 예산활동이 가장 활발한 바젤시와의 round table 개최를 통해 스위스 성인지 예산 분석 동향과 흐름, 현재까지의 제도화 수준을 검토하고 성인지 예산 제도화 방식의 다양성, 정책적 이슈와 쟁점을 파악하고자 하였음.
- ② 스위스 지방정부(바젤시, 쥐리히시)의 성인지 예산 사례 조사
- ③ 스위스 성인지 예산 전문가 인터뷰
 - 스위스 성인지 예산 분석기법으로서 BASS 분석기법을 만들고, 이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의 성인지적 예산분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 온 경제학자 Mascha Madoerin을 만나 스위스에서의 성인지 예산의 도입과정과 구체적인 성인지 예산 분석 기법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함.
- ④ 영연방국가들의 성인지 예산 제도화 사례 조사
 - 90년대 중반 이후 영연방 사무국의 성인지 예산 지원 활동의 성과와 한계, 영연방 국가의 모범 사례조사
- ⑤ 국제심포지엄 개최를 위한 각국 전문가 발굴
- ⑥ 3개년 사업의 연구 인프라 구축을 위한 네트워킹
- ⑦ 한국의 성인지 예산 제도화 사례 홍보

3. 참가자 규모: 총 3명

본원 김영옥 선임연구위원, 마경희 연구위원, 이선행 연구원

4. 회의일정

날짜	일정
4/27(일)	인천공항 출발(12:55), 영국 런던 도착(16:55)
4/28(월)	영국 영연방 사무국 방문 Meeting with Mrs. Sarojini Thakur & Mrs. Fatimah Kelleher
4/29(화)	영국 출발, 스위스 쥐리히 클로텐 공항 도착
4/30(수)	스위스 바젤로 이동 Meeting with Ms. Mascha Madoerin 시간 : 14.00 – 17.00 PM 장소 : The Meeting Centre of the Rail Station
5/1(목)	바젤시 공무원과의 Round table meeting (Women's Council & Statistical Office) 시간 : 14.00 – 17.00 PM

	장소 : the Office for Equal Rights for Men and Women
5/2(금)	바젤에서 쥐리히로 이동, 쥐리히 시청에서 Mrs. Dore Heim 면담
5/3(토)	쥐리히 클로텐 공항출발, 한국 도착

5. 주요내용

가. 영국 영연방사무국 방문

면담 날짜 : 2008년 4월 28일 월요일
면담 시간 : 오전 10시~11시 30분
면담 기관 : 영연방사무국(Commonwealth Secretariat)
면담 장소 : Commonwealth Secretariat, Marlborough House
면담자 : Mrs. Fatimah Kelleher
(Program Officer, Social Transformation Programmes Division)

▶ 기관 소개

영연방은 50개국 이상이 회원국이며 영연방사무국은 회원국들의 성인지 예산활동을 지원하여 오고 있으며, Fatimah가 속한 Gender Section under the Gender Macro economy는 gender economy분야를 담당하고 있으며, Gender Responsive Budget, Gender Aid Architecture, Gender and Trade, Gender and Market Access, Gender and Development등을 다루고 있음.

▶ 영연방 사무국의 성인지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활동

영연방 사무국의 경우 현지의 거점이 있지도 않고, 기금을 지원하는 기관도 아니기 때문에 UNIFEM이나 UNDP와 같이 주로 다른 개발 기관들과 함께 일하고 있음. 스리랑카나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의 많은 국가들과 성인지 예산에 대한 컨퍼런스나 성인지 예산을 소개하는 심포지움 등을 개최하고 있음. 인도의 경우 2007년 6월에 50개의 부처가 참여하는 워크숍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Gender Budgeting Cell을 만든 바 있음. 인도는 2002년 성인지 예산을 실시하기로 결정한 이후 2년 마다 성인지 예산 보고서를 제출해가고 약속하였고, 2005년에는 그 동안의 진행과 앞으로의 도전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음. 2006년 초에 젠더정책 등에 관한 질문지를 보냈는데, 50여개 부처 중에서 24개 부처들이 응답하였음.

▶ 영연방의 지원 중단 이후 개별 국가들의 성인지 예산 사업의 지속성 및 성공요인

남아공이나 호주와 같은 많은 영연방 국가들의 경우 대부분 시민사회의 이니셔티브로 시작되었는데, 이와 같이 풀뿌리의 수준에서 시작된 작업들이 로비 등의 과정을 거쳐 정부에 영향을 미쳐 결국 예산을 분배하도록 한 사례들이 많음. 시민사회단체들이 정부에 압력을 행사하여 성인지 예산을 시행 하도록 만든 탄자니아의 경우가 대표적인 예임. 2005년 보고서에서 각 국가들의 성인지 예산의 단계별 진행 정도를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마지막 단계가 정부가 실질적으로 예산을 배분하게 되는 단계임. 이와 같이 시민사회의 역할과 참여는 성인지 예산의 지속성을 위해 매우 중

요한 요소임.

▶ 여성단체와의 연계

영연방 국가들의 경우 대부분 시민사회 주도로 성인지 예산이 수행되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여성 단체의 운동으로 시작되어 국가 재정법에 성인지 예산이 명시되기에 이르렀음. 그러나 성인지 예산은 실제로 굉장히 기술적이며, 경제적인 전문용어를 사용하는데 반해 여성 단체들이 이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고, 따라서 여성 단체들과 어떻게 파트너십을 맺고 사업을 추진하느냐는 매우 중요한 과제임. 따라서 Capacity Building Workshop 등을 개최하여 시민단체 및 여성단체 대표들에게 알려주는 방법이 있고, 비전통적인 영역에 성인지 예산을 적용할 시 성평등과 관련된 지식을 알리는 역할을 여성단체로 하여금 담당토록 할 수 있음. 예컨대 농업 분야에서도 보면 사실 남성들이 대부분의 영역을 담당하고 있고, 여성은 매우 소수에 그치고 있음. 즉 여성들은 기계사용법 이라든가, 지역시장에 어떻게 접근하는지에 대한 지식이 부족함. 따라서 성인지 예산을 이러한 영역에 적용할 경우 기본권으로써 성평등의 중요성을 전파하는 역할을 여성단체가 담당할 수 있을 것임. 또한 주류 경제학자나 경제부처 등에 성평등이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무역 정책, 경제 정책이 성중립적이지 아니라는 것을 설명할 필요가 있음.

▶ 우수사례

2005년 보고서에 나타나 있듯이, 모성사망감소를 위한 프로젝트를 다룬 모리셔스와 재생산 이슈를 다룬 우간다의 경우는 성인지 예산의 결과로 나타난 성공적인 사례로 볼 수 있으며, 시민사회의 역할과 참여와 관련하여서는 탄자니아의 TGNP가 가장 훌륭한 우수사례임.

▶ 개별 국가들의 재정부 및 여성부와의 역할분담

영연방은 정부 기구 내에서도 여성부 보다는 재정부를 1차적 파트너로 삼고 있는데 그 이유는 첫째, 재정부가 예산제도 시행에 있어 필수적인 기술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 둘째, 제도의 효과성을 위해서는 매년 예산주기와 중기재정계획의 맥락이 고려되어야 하는데 이를 주도하는 것 역시 재정부라는 점, 셋째, 성 주류화는 여성업무 전담 부서 이외의 부서에서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주도해 나가는 것이므로 재정부가 예산 업무를 주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 등을 들고 있음.

영연방은 여성부 역할 역시 중요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측면에서 재정부가 더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 대부분의 국가 기구 내에서 여성부의 주변화된 위상과 자원제약으로 인해 여성부는 성인지 예산 활동을 주도하기보다는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음. 영연방 사무국은 몇 년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주최하며 여성부나 재정부 등과 같은 부처들 간의 대화의 통로가 되어 주기도 하며, 제도적으로 약한 여성부에 힘을 실어주고, 재정부에게는 여성부의 중요성을 언급해 주거나 옹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 현재까지 영연방 활동의 성과와 과제, 전망

회원국들이 대부분 개발도상국이므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며, 과중한

업무수행으로 부처 내에서 성인지 예산에 대한 이슈가 축소되는 문제가 있어 이를 주류화 시켜야 하는 과제가 있음. 두 번째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훈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수행되지 않아서 훈련 이후에도 성인지 예산에 대해 오해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는 문제로, 예컨대 성인지 예산을 여성 특수적 프로젝트로 착각한다던가, 농림부에서 여성개발에 할당되는 예산이 5%가 있는데 이를 성인지 예산으로 착각하는 문제 등임. 마지막으로 데이터에 관한 한 계로, 부서들에 통계 등을 제공할 책임이 있는 National Women's Machineries 같은 경우 성별 분리 데이터나 젠더 관련 데이터 등을 제공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는 영향력과 재원 면에서 열악한 환경을 갖고 있기 때문임.



<그림 1> 영연방 사무국 방문

나. 스위스 성인지 예산 전문가 인터뷰

면담 날짜 : 2008년 4월 30일 수요일
면담 시간 : 10시 30분-11시 30분
면담 장소 : The Meeting Centre of the Rail Station
면담자 : Mascha Madoerin(Expert on GB, feminist(macro) economist)

▶ Mascha Madoerin에 대한 소개

거의 모든 스위스 GB에 관여해서 일해 온 전문가로서 연방정부와 지방정부의 성인지 예산 분석 경험이 풍부함. UNIFEM을 위해서 성인지 예산 보고서를 만든 바 있으며, 그 이후로 많은 성인지 예산 이니셔티브에 참여해왔고, 정부에 성인지 예산을 소개하는 일을 해오고 있음.

▶ 예산 및 조세를 포함한 경제적 의사결정에 대한 바젤시의 특수성

스위스의 행정구조는 Cantonal, Local, Central 차원으로 나뉘며, 예산, 지출등과 같이 돈과 관련

된 문제에 대해서는 카운티와 지방 정부가 많은 자율권을 가지고 있음. 예컨대, 세금을 낼 때, 바젤 시에 세금의 60%가 나가고 나머지가 연방으로 나가는데, 이처럼 자치재정기관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Cantonal와 Local Government가 전체 지출의 2/3를 차지하며, Cantonal 수준에서의 행동과 이익이 매우 중요하게 고려됨. 이, 때문에 연방은 예산 문제에 대해서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함. 주요한 의사결정은 시의회에서 하거나 주민들의 투표를 통해서 이루어지며, 성인지 예산분석과 관련된 시의 의사결정은 의회에서 찬반이 팽팽이 맞선 상황에서 바젤시의 보수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대표의 결단으로 겨우 시행되게 되었음.

바젤과 제네바는 시민당이 이끌고 있고, 의회는 행정부보다 더 보수적임. 또한 성인지 예산은 재정부 소관으로 되어 있지만 이는 주로 성평등국(Gender Equality Office)과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스위스의 경우는 노동부와의 협력을 하는 호주에 비하여 덜 우수한 모델임, 의회의 관점을 바꾸는 문제는 아직 의회가 대부분 남성들로 이루어진 것을 고려할 때 꽤 시간이 많이 걸리고, 많은 노력이 걸리는 문제가 될 것임.

▶ 여성위원회(Women's Council), 성평등국(the Cantonal Gender Equality Office), 통계청the Office of Statistics의 역할

1997년 the Canton of Basel-City에서는 the Women's Council, the Cantonal Gender Equality Office, the Swiss Public Service Union과 the Cantonal 의회 의원이 성인지 예산의 아이디어를 발전시켰음. 그러나 지방의회가 GRB 프로젝트를 하기로 한 것은 2000년의 일로 이 프로젝트는 GRB와 관련된 the Women's Council의 지속적 사업으로 수행되었고, the Women's Council과 의회, 시민단체의 밀접한 협력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the Women's Council 은 바젤의 여성단체가 바젤시정부와의 오랜 토론과 협상을 통해 구성된 18명의 젠더 전문가(모두가 여성)로 이루어진 성평등 위원회이며, 이 위원회는 1997년에 사업을 시작해서 같은 해에 젠더 예산을 주요 사업으로 만들었음. 이 위원회는 성인지적 예산분석에 대한 지속적인 논쟁과 여성과 남성 의회의원 및 시민사회 조직과의 관계를 만들어 내는데 중요한 행위자임. 지방정부의 the Gender Equality Office 가 이 프로젝트를 주도하고 시행할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the Office of Statistics 는 데이터를 제공. 성인지 예산이 지속된 데 있어 통계청으로부터 온 사람(현재 General secretary of Fianance로 일하고 있음)이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그는 통계청에서의 경험을 통해 이 연구가 시행되기 위해서 어떠한 지표가 필요한지를 잘 알고 있었고 통계청이 현재 쓰고 있는 데이터로 분석 작업을 시도하였음.

당초 성인지 예산사업의 성과는 비교적 미미했는데 이는 정부와 의회가 이에 대해서 매우 소극적이었기 때문이며, 생소한 주제라는 점에서 오는 기술적인 문제도 있었음. 이 단계에서 Extra Parliamentary Commission과 Gender Equality Office가 설립이 되었는데 이는 더 나은 소통을 위한 차원에서 기능적 역할을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서 세워진 것임.

▶ BASS(the Swiss Centre for Labor and Social Policy Issues)

1994년 조합회의에서 스위스 공공서비스노조의 여성 노조원들은 국가 예산삭감에 대해 토론하였고, The Swiss Conference of Gender Equality Delegate도 같은 시기 같은 이슈에 관심을 두었으며, the Public Service Federation 역시 국가 예산 삭감에 초점을 맞춘 연구에 관심을 두었

음. 이 세 기관은 the Swiss Centre for Labor and Social Policy Issues(독어로 BASS: Buero fuer arbeits-und sozialpolitische Studien)에 "Saving on Women?"이라는 제목의 연구를 위탁. 세 기관의 성평등 전문가 그룹이 연구자들에게 자문을 제공하였음. 이 연구는 시민사회조직, 시민, 정치가를 위한 BASS Method 사용방법과 리플렛을 만들었고, 연구결과는 1996년 발간됨(연구결과는 독어 또는 프랑스어로 <http://www.equality.ch>에서 이용가능함). 이 연구의 분석방법과 통계방법은 오늘날 스위스의 예산분석과 활동에서 중요한 근거가 되고 있음.

▶ BASS의 예산 수혜귀착분석

예산에 대한 수혜 분석은 기술적인 상상력을 필요로 하는 어려운 주제이며, 따라서 전통적인 도구들이 여기에 적용이 가능하지 않고 상상력과 변형이 필요함. BASS의 케이스가 레지나가 수행한 베를린의 케이스와 다른 점은, 베를린 케이스가 분석의 마지막의 단계에서 성인지 예산의 관점을 적용하지만, BASS의 경우 성인지 예산 전반에 걸쳐 이 문제를 적용하는데, 만약 성 주류화 연구와 바젤시의 정부 예산의 다른 기관에서 중요한 문제가 있다면, 문제를 수혜자 분석으로 바로 다룸. 훈련프로그램과 같이 시간적 부담과, 자원에 대한 접근성과 같은 여러 가지 요소에 대한 고려를 하거나, GEM이나 GEI같은 체크리스트가 있다면 이를 통해 수혜귀착분석을 하게 됨.

상상력의 예를 들면, 통계가 입원(hospitalization)의 감소를 보여준다면, 이는 여성과 돌봄 노동을 하는 사람의 부담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하며, 인구통계에서 변화가 있기 때문에, 학교, day care를 제공해 주는 공공 시스템에도 국가적 차원에서 보장을 해주는 것이 있어야 하지만 스위스에서는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음. 유급 및 무급노동 보고서에 나타난 비교연구가 보여주는 정치적 경제적 고려 상황은 매우 열악한데, 10%의 노동만이 유급이고, 90%가 무급노동이며, 가계가 무급 노동의 70%를 행하고 있음을 볼 수 있음. 정부 차원에서 성인지 예산이 실행되지는 않고 있으며, 시범 사업으로써 시급히 Gender Desk가 소통을 위해서 설치될 필요가 있음.

다. 스위스 바젤시 공무원 및 전문가와의 Round Table

면담 날짜 : 2008년 5월 1일 목요일
면담 시간 : 오후 2시-5시
면담 기관 : Canton of Basel-City Women's Council, Statistical Department
면담 장소 : the Office for Equal Rights for Men and Women
면담자 : Straumann Leila(The Women's Council), Gabriella Matefi(The Women's Council)
Andrea Pheifer(Statistical Department) 등

시간	발표자 및 주제
14:00	발표자 : 김영옥 (본원 선임연구위원) 주제 : Information about gender budgeting and gender equality policies in Korea
14:30	발표자 : Mrs. Gabriella Matefi (Women's Council) 주제 : Gender-disaggregated expenditure incidence analysis for the Canton of Basel-City, Spending by the Canton of Basel-City and unpaid work

15:15	토론 및 휴식
15:30	발표자 : Mrs. Andrea Pfeifer (the Statistical Department) 주제 : Following and present projects: Indicators for the educational sector
16:00	토론
17:00	폐회



<그림> 스위스 바젤시 공무원과의 Round Table

► Mrs. Gabriella Matefi의 발표 : “Gender-disaggregated expenditure incidence analysis for the Canton of Basel-City, Spending by the Canton of Basel-City and unpaid wor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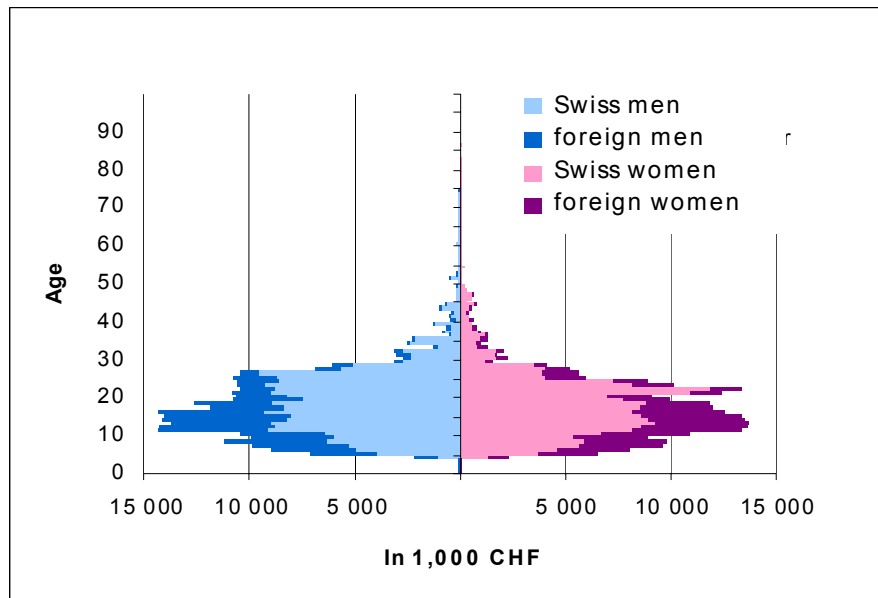
바젤시에서 분석한 공공지출과 무급 노동의 비교, Canton of Basel의 행정부에서의 여성과 남성의 고용과 personnel expenditure에 대한 발표

2002년 Katherine Rake의 “Ways of Introducing gender analysis into the budgetary process”에서는 gender가 드러나며 세입과 세출을 감사하고, 성별 영향 평가를 시행하며, 성주류화와 벤치마킹을 할 것을 언급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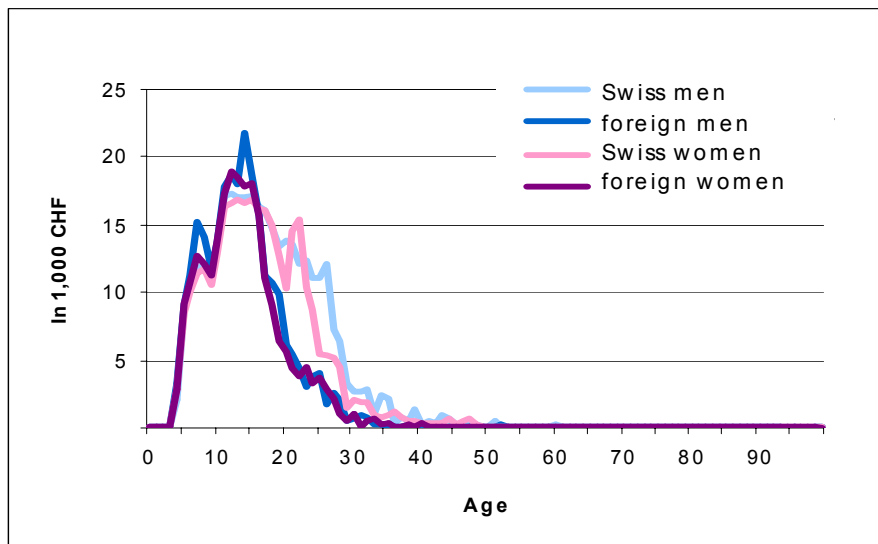
지출에 관한 세입 분석 부분을 보면, 1990년대 초반 불황 시기의 스위스에서는 지출예산이 삭감되었음. 따라서 Governmental Commission on Gender-equality Affairs와 Office for Gender Equality는 지출 삭감이 남성과 여성에게 같은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음. 10년 전인 1998년에 첫 회의를 시작함으로 첫 번째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결과물은 굉장히 세분화된 수혜자 분석이었음.

일반적으로 수혜귀착 분석은 공공지출이 다양한 인구집단들 사이에서 어떻게 분배되고 있는지를 비교하기 위한 목적의 분석임. 예산 수혜자 분석은 특정한 공공 기관을 다루기 보다는 주(state) 전체의 전반적인 세출과 세입을 다루게 되며, 통계에 근거하여 보면 지출은 수혜자에게 적용되고, 세입은 세금을 내는 사람에게 적용됨. 연구의 초점은 지출 분석에 맞추어져 있고, 데이터 문제로 아직 세입에 대한 고찰은 이루어지지 않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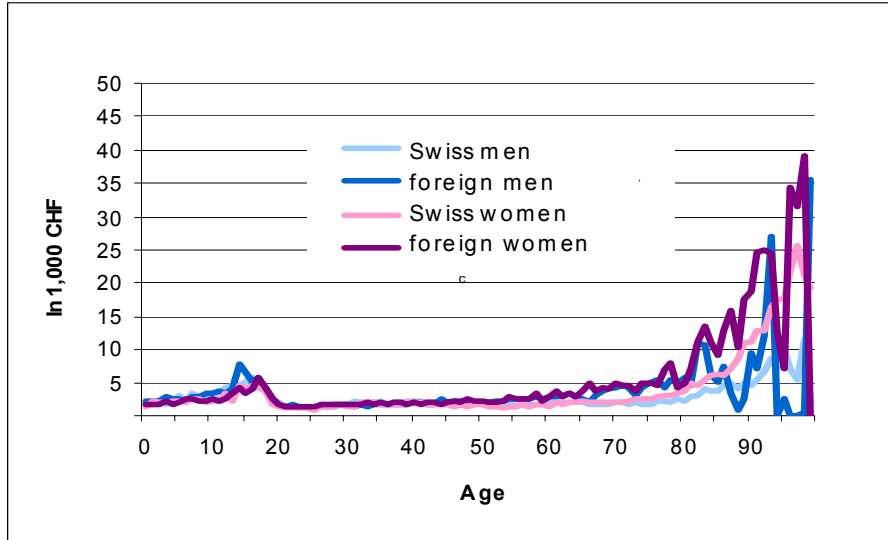
교육 부문을 보면 지출이 남성들에게 10% 정도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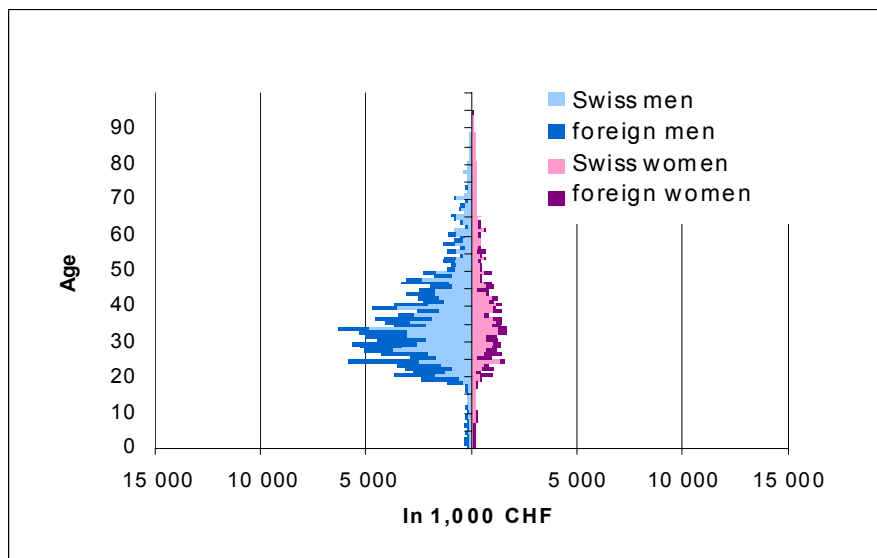
16살이 지나면 외국 인구에 대한 평균 지출은 외국인에 대한 지출보다 빠르게 감소함.



사회복지 부문을 보면 나이와 국적에 따라서 사회복지 부문에 따른 지출이 다른 것을 볼 수 있음.



Public Safety 영역을 보면 성별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음. 폭력은 성 특정적인데, 20세에서 65세 사이의 남성을 위해서 127 million CHF가 사용되었고, 여성을 위해서 42 million이 사용되었으며, 이는 주로 경찰, 교도소, 행정력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음.



Canton of Basel의 지출과 무급 노동을 보면 유급보다 더 많은 무급 노동이 있었음.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일했는데, 여성은 유급과 무급 모두에서 207.9 million 시간을 일했고, 남성들은 유급과 무급 모두에서 169.9 million 시간을 일했음.

▶ 사람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사업에 대한 집단별 수혜귀착 분석 방법과 통계자료 확보 방법

사람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하지 않는 사업(예: 시설건축, 도로건설 등 사회 인프라 등)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으로 인해 수혜를 받는 사람들 혹은 해당 사업에 대한 인건비 통계를 근거로 하며, 이러한 통계는 표본에 기초한 서베이 조사를 통해 확보함.

► **Andrea Pfeifer 발표: Gender-Budget in the Canton of Basel-Stadt: Indicators for Gender Equality in the Educational Sect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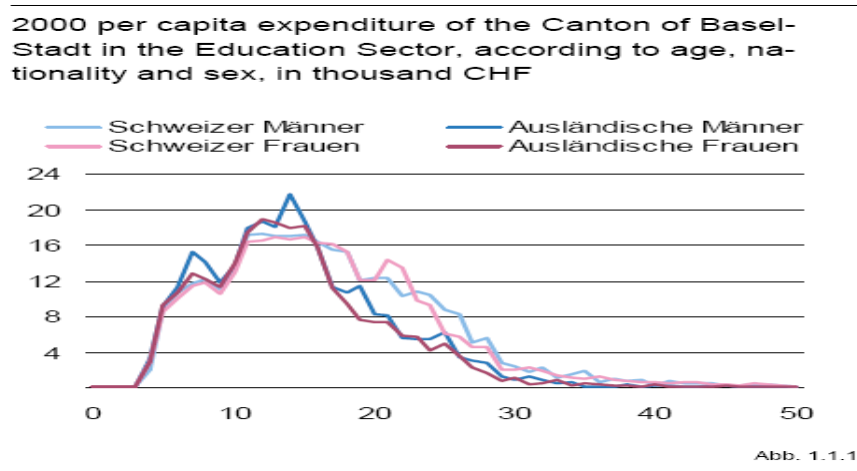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교육 부문에서 성 평등의 발전을 보여주는 지표들을 개발하는 것이며, 교육 부문이 시범 사업으로 선정된 이유는 정치적으로 관련된 주제이고, 성 평등과 관련되어 잘 연구되는 주제이기 때문임.

이론적인 개념과, 방법론적 접근, 그리고 결과들이 주요 발표내용.

2003년 Rhonda Sharp에 의해 발표된 성과 중심 성인지 예산은 성과 중심 예산 체계 내에서의 성인지 예산 제도를 논의하고 있으며 결과(outcome)는 이러한 행동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정부가 얻기를 원하는 영향은 무엇인가 이고, 산출(output)은 어떻게 이러한 결과를 측정할 것인가 하는 것임. 이를 위한 방법론적 접근의 주요한 목적들을 규정하고, 지표를 설계하며, 데이터를 취합하고, 통계적 계산을 하였음.

프로젝트의 세 가지 목표는 모든 성과 수준에서 모든 학생들이 동등한 교육 기회를 받는 것, 교육 부문이 부모들로 하여금 일과 가정에서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하는 것, 교육 부문에서 일하는 여성과 남성들의 동등한 직업적 기회임.

목표와 정책의 예를 들면, 정책 목표는 여학생과 남학생에게 동등한 재정적 자원이 배분되는 것이다. 지표는 Canton of Basel의 1인당 지출임.



교육 부문에 대한 위의 표를 보면, 내국인과 외국인의 차이가 남성과 여성 간의 차이보다 큰 것을 볼 수 있는데, 20세 연령에서 여성에 대한 지출이 남성에 대한 지출의 80% 정도임을 볼 수 있음.

대학 수준에서의 차이는 학문 선택의 성별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임. 즉, 여성들은 주로 교육기간이 짧고 비용이 적게 드는 학문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으며, 여성들의 박사논문도 적은 편임.

과정적 지표를 보면, 정치적인 목적은 여학생과 남학생이 integrative, segregative schooling으로부터 동등한 혜택을 입는 것이며, 지표는 integrative schooling과 segregative schooling에서 여학생과 남학생의 비율임.

Proportion of pupils in integrative schooling, according to sex and level of education, 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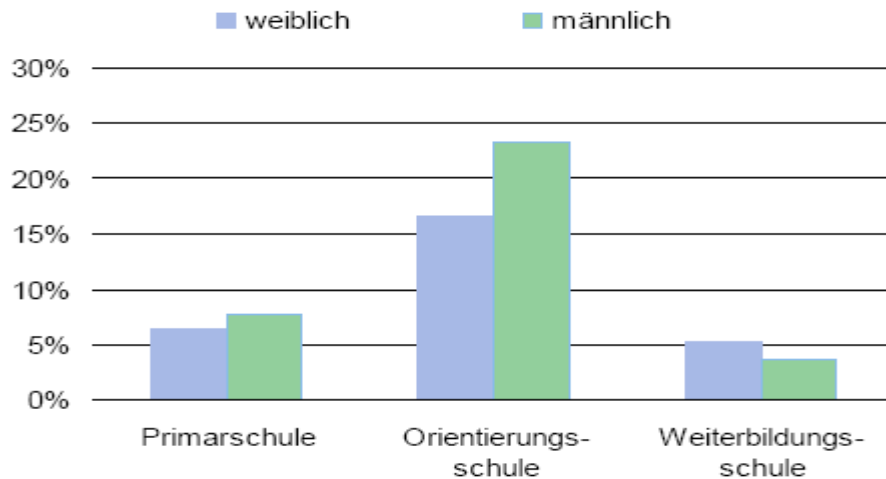


Abb. 1.2.1

시스템의 변화가 있는데 이는 segregative에서 integrative schooling으로의 전환임.

Segregative schooling은 학습, 성과, 사회 행동에서의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 관한 것인데, 이는 외국 학생들, 장애 아동들을 위한 특별 수업 등을 포함함. Integrative Schooling은 가능하면 이런 학습에의 어려움을 가진 학생들도 일반 학생들의 수업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며, 치료교사들이 이들을 지도하게 됨.

Proportion of male pupils of compulsory education in special class, introduction class for non-native speaking pupils and special school, according to canton and ye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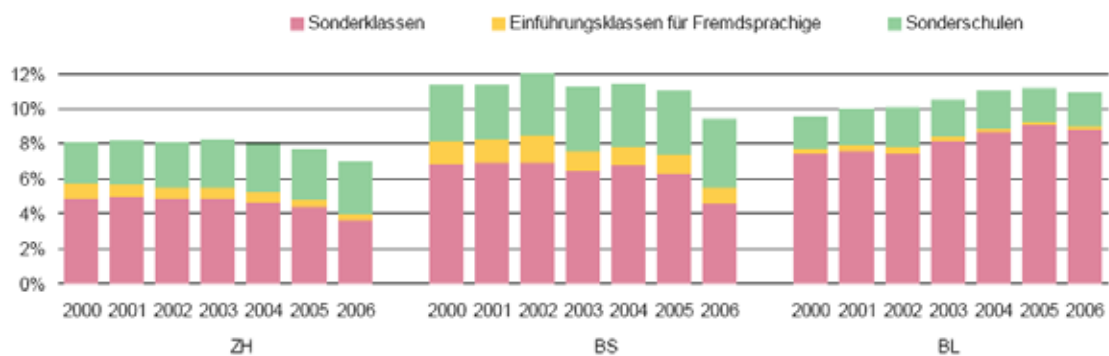


Abb. 1.2.3

위의 표는 segregative schooling에서의 소년들을 나타내고 있는데, 바젤의 경우 특별 수업에서 남아는 4.6%였고, 여아는 2.5% 였음. 외국인 학생들의 수업에서는 성차가 거의 없었고, 특수 학교의 경우는 남아가 3.9% 여아가 2.5%로 소년들이 갖는 기회가 1.5배 정도 큼.

산출(Output) 지표를 보면, 정치적인 목표는 여학생과 남학생의 school grade가 동등해지는 것임. 지표는 여학생과 남학생의 school grades의 평균임. 결과(Outcome) 지표를 보면, 정치적인 목표는 여학생과 남학생의 교육 기회가 같아지는 것이고, 지표는 대부분의 의무 교육에서 25-34세의 비율이 같아지는 것임.

라. 쾰리히시 방문

면담 날짜 : 2007년 5월 2일 금요일
면담 시간 : 오전 10시-11시 30분
면담 기관 : Gender Equality Office in Zurich
면담자 : Mr Dore Heim

▶ 성인지 예산분석 측면에서 본 쾰리히의 특성

스위스에서 주로 분석되는 성인지 예산은 local budget이며, 이는 스위스에서 지역을 나누는 단위로써 Canton이 갖는 높은 수준의 자율성과 책임에서 기인함. 이들 각각의 지역에 있는 빈곤층의 대다수가 여성들이고 이들 중 대다수가 은퇴를 하여 수입이 거의 없으며, 돌봄을 필요로 하는 노인 여성들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들에게 더 많은 예산이 책정되어야 한다는 것은 성평등의 주제가 아니라 여성들이 더 많은 예산을 지원받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며, 성인지 예산 프로젝트에서 수행되는 분석 중 절반 이상은 분석 작업이 있기 전 이미 일반적인 상식으로 알 수 있는 내용들임. 즉 Gender의 측면이 아닌 Man과 Woman으로 갈리는 Sex의 측면으로 봐야 하는 문제들이 많은데, 예컨대 여성들은 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남성들은 주로 자가용을 이용한다는등의 문제인식임. 이러한 것들을 무시하고 남성과 여성간의 예산배분을 50:50으로만 하려는 것은 문제가 있음.

시의 예산중 여자들에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적으로 여성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도시의 문제들 중 여성 특징적인 문제라고 확실하게 규정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존재함. 또한 계속해서 도시는 변화하고 있는데, 예산을 들여 분석을 할지 말지에 대한 끊임없는 논쟁(시의 의사결정 구조로부터 기인함) 때문에 분석을 못하고 있음.

▶ 젠더DB의 구축상황과 성인지 예산분석 사례

충분한 젠더DB를 보유하지 못하고 있는 점도 쾰리히시의 약점이며, 이는 바젤과의 두드러진 차이점임. 만약 젠더DB가 충분히 갖춰져 있었다면 앞에서 제시한 약점들은 보완할 수 있었을 것임. 성인지 예산분석에 있어 젠더DB의 역할은 매우 중요함. 예산의 젠더분석을 위해 젠더DB를 생산하고 있는 사람들이 존재하며 젠더DB는 그 자체로 성평등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젠더DB는 성인지 예산의 이로운 부산물인 셈임.

충분한 젠더DB의 보유는 분석의 결과가 실제 정책에 반영되기 위해서도 중요한데 웨이터와 웨이트리스에 대한 분석의 예를 보면 알 수 있음. 우선 이 분석에서 데이터 베이스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음. 24,000명의 고용인들을 면접하여 임금차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밝혀냈지만 그 갯이 크지 않았고 부족한 DB는 결국 정치인들을 설득할 수 없었음.

보건,사회, 문화 부문에서 젠더DB를 생산하고 있는데 이 작업을 담당하는 것은 민간기관이고, 이들은 전체 재원의 50%를 대중을 위한 서비스를 위해 쓰며 여기에는 상담 같은 것들이 포함됨. 이들은 상담을 통해 고객과 직접 접촉하며, 고객의 남녀비율과 남녀별로 요구되는 서비스의 차이를 알 수 있음. 여기에서 축적된 데이터를 통해 민간기관은 보건, 사회, 문화영역에서의 수혜분석을 실시하였는데, 분석결과는 이들 분야에서의 주된 소비자는 여성들이었다는 것이며, 원인은 이들 서비스의 사용시간이 여성들이 주로 이용하는 낮 시간이었기 때문. 이러한 분석결과를 정치가들로 하여금 성평등에 반하는 주장을 할 빌미를 줄 우려가 있음. 이러한 분석사례들을 통해 분석의 결과가 정책반영에 활용되기 어려운 점을 보일 수 있음.

▶ City of Zurich의 성특수적(gender-specific) 예산분석(2001-2005)

취리히시의 GRB 역사는 the Canton of Basle-City와 유사함. 시의회의 의원과 시 성평등부(the City Gender Equality Office)는 1996년 BASS 연구결과가 발간된 이후 젠더 특수적 예산 분석을 지지함. 첫 번째 시도는 1997년 시의회에 의해 기각됨.

2001년 7월 다수의 의원들이 찬성함으로써 통과됨. 시의회의 의원들은 GRB를 지지했고, the Cantonal 의회(Canton of Zurich)의원들 역시 cantonal 수준에서도 지지했음. 2000년 the Cantonal 의회는 시의 모든 지출과 서비스를 성별에 따라 분리한 구체적인 보고서를 생산하도록 결정함. 2년 후 Cantonal 정부는 the City of Zurich and the Canton of Basle-City의 젠더특수적 분석 결과를 기다릴 것을 제안함. 2006년 말 이후 새로운 조치는 취해지지 않음.

2003년 8월 취리히시 정부는 "성별분리된 예산분석(gender-differentiated budget analysis)에 대한 작업그룹이 제출한 보고서에 기초하여 2004년부터 2005년 까지 성별분리된 예산분석의 기술적 이용가능성과 정치적 관련성을 검토하기 위해 시범 사업을 실시했고, 실제 결과를 보여주고 완전한 분석이 가능한 비용을 추정함.

2005년 가을 시 정부는 "성별분리된 예산 분석" 시범사업의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였고, 개인 비용의 젠더 특수적 분류와 관련된 몇가지 제안들을 담고 있음. 이 보고서는 성분리 통계의 수집을 요구. 또한 취리히시 공공 서비스에 지출된 월급에 대한 감사를 시작함. 공무원에게 지급된 월급과 관련된 자료는 정기적으로 성별 분리되어 분석되고 시 의회에 지급됨. 이 시범사업 보고서는 체계적 시행을 반대하지만 몇 가지 다음 단계를 제안함. 시의회 사무국(the Office of the City Parliament)은 2005년 10월 Auditing Commission에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결정함.

▶ Canton of Zurich: 공공지출 예산 삭감에 대한 성특수적 분석(2004)

2003년 11월 주정부는 144개의 사업으로 구성된 "예산안정화 프로그램(budget stabilization programme)"을 도입. 이것은 공적 적자를 줄이기 위한 것. Canton's Gender Equality Unit 은 the Research Division of the University Centre for Social Work에 사회통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들 사업에 대한 분석을 의뢰함. 7개 사업이 선택되었음. 재정적 자원이 제한되어 연구는 누가 이러한 사업으로부터 영향을 받는지만을 분석함. 분석된 7개 사업 중 세 개의 사업이 특히 여성에게 강한 영향을 미침.

6. 참가자 역할

- 가. 방문기관 및 방문인사 선정, 섭외
- 나. 기관방문과 전문가 면담시 논의
- 다. 기관 및 전문가와 네트워킹 및 향후 협력방안 논의
- 라. 관련자료 문의 및 수집
- 마. 한국의 성 인지 예산 제도화 사례 홍보

7. 방문 성과

가. 영연방 국가 및 스위스 성인지 예산 시행의 실제 현황 파악

인터넷과 영어로 번역된 각 국가들의 공식 간행물을 통해서만 접하기 어려운 해외 성인지 예산 현황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보를 습득할 수 있었음. 예를 들면 영연방 사무국의 경우 90년대 중반 이후 성인지 예산의 전세계적 확산 과정에서 상당한 역할을 하였고, 현재도 그러하지만 현재 재정적, 조직적 여건이 좋은 상황이 아니라는 점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데는 한계를 가지고 있음. 스위스 BASS 분석기법의 경우 출장 전 수집한 문서 자료상으로 이해하기 어려웠던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음. 그러나 기대와 달리 방법론상의 취약점을 발견하였고, 체계적이고 치밀한 분석기법은 전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음. 우리가 독자적으로 좋은 분석방법론을 개발하고 분석결과를 해외에 알릴 수 있다면, 해외에서도 좋은 모범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나. 자료 수집

방문국 담당자와의 논의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최근의 새로운 자료를 얻을 수 있었음. 방문국으로부터의 수집자료 목록은 다음과 같음.

- ▶ Commonwealth Secretariat, 2007, Financing gender equality: Commonwealth perspectives
- ▶ Commonwealth Secretariat, 2005, The Commonwealth Plan of Action for Gender Equality 2005-2015
- ▶ Canton of Basel Stadt, 2007, Besser Gleich
- ▶ 기타 회의를 위해 준비 방문국에서 준비한 프리젠테이션 자료

다. 한국의 성인지 예산 및 본원 연구에 대한 홍보

출장 전 전년도 연구성과에 기반하여 개정된 영문 홍보자료를 작성하였고, 방문국의 면담자들에게 이를 배포하면서 한국의 성인지 예산 제도 및 본원의 연구를 소개하였다. 면담자들은 한국의 여권과 성인지 예산제도의 현황에 대해 상당한 관심과 흥미를 가졌음.

라. 해외 성인지 예산 업무 담당 공무원 및 전문가와의 네트워크

출장자들이 방문한 기관의 담당자들은 대부분 방문국 내에서 성인지 예산 제도화에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 분야에 대해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임. 향후 본원에서의 연구 진행 과정에서 필요한 협조를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음. 이들은 향후에도 우리의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보내주기로 하였으며, 연구진은 연구기간 동안 이러한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임.

8. 관련기관 및 인사 리스트

이름	소속 및 연락처
Mascha Madoerin	소속 : 스위스 성인지 예산 전문가, 경제학자 주소 : Lehengasse 27 CH-4142 Muenchenstein, Switzerland 전화 : +41 61 411 74 60 E-mail : mmadoerin@bluewin.ch
Straumann Leila	소속 : The Women's Council, the Cantonal Gender Equality Office (Web: www.gleichstellung.bs.ch) 주소 : Rheinsprung 16, CH-4001 Basel, Switzerland 전화 : +41 61 267 66 82 팩스 : +41 61 267 66 80 E-mail : Leila.straumann@bs.ch, gsb@bs.ch
Heim Dore (Head)	소속 : Gender Equality Unit of the City of Zurich (http://www.stadt-zuerich.ch/gleichstellung/) 직위 : Head of Gender Equality Office 전화 : +41 11 117 17 75 E-mail : dore.heim@zuerich.ch
Mrs. Sarojini Thakur	소속 : Commonwealth Secretariat(Web: www.thecommonwealth.org) 직위 : Head of Gender Section, Social Transformation Programmes Division 주소 : Marlborough House, Pall Mall, London SW1Y 5HX, United Kingdom 전화 : +44 20 7747 6543 E-mail : S.Thakur@commonwealth.int, sgthakur@hotmail.com 팩스 : Dir +44 20 7004 3684, Gen +44 20 7930 1647
Mrs. Fatimah Kelleher	소속 : Commonwealth Secretariat(Web: www.thecommonwealth.org) 직위 : Program Officer, Social Transformation Programmes Division 주소 : Marlborough House, Pall Mall, London SW1Y 5HX, United Kingdom 전화 : +44 20 7747 6221 E-mail : f.keller@commonwealth.int
Gabriella Matefi	Women's Council 위원
Andrea Pheifer	Statistical Department 공무원